

사회

# 저소득 가정에 자사고는 '그림의 떡'

(자율형 사립고)

## 정부 일부만 지원해 年 600만원 부담... '사회적 배려대상 전형' 미달 사태

### 송원고·보문고 정원 20% 중 절반 지원 그쳐

정부가 자율형 사립고에 저소득 가정 자녀 등을 정원의 20% 이상 뽑도록 한 '사회적 배려대상자 전형'이 외면받고 있다.

저소득 가정 자녀에게 차별화된 교육기회를 제공해 빈곤의 악순환을 멈추게 해준다는 취지와 달리 정부가 연평균 1200만원에 달하는 교육비의 절반 밖에 지원하지 않아 사회적 배려대상 전형에 미달 사태가 빚어지고 있는 것이다.

2일 광주지역 자율형 사립고인 송원고, 송덕고, 보문고 등에 따르면 최근 2011년도 학생 모집 결과 송원고의 경우 사회적 배려대상자 정원 56명 중 30명만이 지원했다. 보문고도 56명 정원에 23명이 지원했으며, 송덕고만 정원을 채웠다.

지난해 첫 신입생을 선발한 송원고는 2년째 정원에 미달됐다. 이는 전국적인 현상으로 지난해 전인 북일고는 정원 83명 모집에 10명 만이 지원했다.

이들 학교는 오는 11월 추가모집에 들어가지만, 정원을 채우기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사회적 배려대상자 가정이 자사고의 학비를 감당할 여력이 없기 때문이다.

교육계는 광주 자사고의 연평균 교육비를 1200여만원으로 파악하고 있다. 연간 1인당 납부금 500만원, 기숙사비 200만원, 아침·점심·저녁 식비 200만원, 보충수업비 등 200~300만

원이다. 그러나 자사고에 재학중인 해당 학생에 지원되는 연간 교육비는 국고지원 납부금 500만원과 점심 한끼 식사비 60여만원, 보충수업비 30여만원 뿐이다. 나머지 600여만원을 저소득 가정에서 부담해야 한다는 것으로, 사실상 자사고는 '그림의 떡'인 셈이다.

전문가들은 이 제도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사회적 배려대상 학생들

에게 마이스터고 수준의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한다. 정부가 전폭 지원하는 특목고인 마이스터고는 학비 전액 면제, 기숙사비 등 사실상 모든 학비가 면제된다.

송원고 관계자는 "정부의 교육 지원금으로는 사회적 배려대상자들이 자사고에 다닐 수 없는 실정"이라며 "실력 있는 사회적 배려대상 가정 자녀들이 마음껏 공부할 수 있는 재정적 뒷받침이 급선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이 제도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사회적 배려대상 학생들

에게 마이스터고 수준의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한다. 정부가 전폭 지원하는 특목고인 마이스터고는 학비 전액 면제, 기숙사비 등 사실상 모든 학비가 면제된다.

송원고 관계자는 "정부의 교육 지원금으로는 사회적 배려대상자들이 자사고에 다닐 수 없는 실정"이라며 "실력 있는 사회적 배려대상 가정 자녀들이 마음껏 공부할 수 있는 재정적 뒷받침이 급선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이 제도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사회적 배려대상 학생들



"오쟁이떡 만들어요" 2일 오전 광주시 북구 삼각동 남도향토음식박물관을 찾은 어린이들이 찹쌀 반죽에 팥소를 넣은 오쟁이떡을 만들며 즐거워하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 故 박철웅씨 일가 조선대 명칭 못써

## 광주지법, 위반 땀 한 번에 1000만원 내야

조선대 옛 경영진인 박철웅 전 총장의 일가에 대해 법원이 조선대 관련 명칭을 사용할 수 없게 했다.

광주지법 민사10부(부장판사 선재성)는 2일 학교법인 조선대(조선대법인)가 박 전 총장의 아들(62)과 부인 정모(86)씨를 상대로 낸 명칭 등 사용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이들 모자에게 ▲학교법인 조선대학교 설립재단 ▲조선대학 설립재단 ▲조선대 설립재단 ▲조선대 라는 이름 등 '학교법인 조선대학교'와 혼동할 수 있는 명칭의 사용을 금했다.

이를 어길 경우 정씨 모자는 위반 행위 한 번에 1000만원을 학교측에 지급해야 한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사립학교에서 교육의 자주성, 학교 운영의 자율성은 교육주체인 교직원, 학생, 학부모와 지역주민 등이 참여해 설립목적

과 교육이념 등에 맞게 학교법인을 운영함으로써 실현되는 것이 설립자의 친인척이 법인 운영에 참여함으로써 확보되는 것은 아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정씨 모자는 조선대 설립자라고 주장하는 박 전 총장의 재산 상속인들로서, 마치 자신들이 조선대 법인에 대해 정당한 권한을 지닌 것처럼 '학교법인 조선대학교 설립재단'이라는 명칭을 사용해 조선대 법인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조선대 관계자는 "이번 법원의 결정에 대해 대학 구성원들은 옛 경영진 측의 정통성을 사실상 부정하는 것으로, 그동안 경영권 복구를 시도해 온 옛 경영진의 움직임에 쫓겨 박은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말했다.

/최희준기자 chae@kwangju.co.kr

### 니원침 (8159) 김중두



### 장성 백양사 요사채 화재

2일 오후 3시20분께 장성군 북하면 약수리 백양사 내 한식 목조 2층 요사(寮舍)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불이나 전체 면적 132㎡ 중 2층 79㎡를 태우고 2900만원 상당(소방서 추산)의 재산피해를 낸 뒤 출동한 소방관에 의해 20여분 만에 진화됐다.

불이 난 곳은 2층 구조로 된 요사로 기도하러 온 신도들이 잠깐 쉬고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장소다. 사찰 측은 문화제는 없다고 밝혔다.

/중부취재본부=김용훈기자 yongho@

### 술값 인내려 "성추행" 거짓 신고

술값이 부족하자 "술집 남자 종업원에게 성추행 당했다"고 거짓 신고한 다방여중업원이 검찰서행.

○2일 광주동부경찰에 따르면 이날 새벽 3시에 광주시 동구 황금동 모 나이트클럽에서 종업원 김모(25)씨와 술을 마시던 박모(여·27)씨는 "김씨가 입을 맞추고 바지를 내리는 등 성추행했다"며 신고했다는 것.

○경찰 조사결과 박씨는 전날 밤 10시30분부터 김씨를 불러 술을 마셨는데, 지갑에 10만원 밖에 없는 상황에서 술값이 40만원이나 되자 허위 신고로 위기를 모면하려 했으나 6시간 만에 진술을 번복.

/양승헌기자 yang@kwangju.co.kr

### 광주담 원앙 집단폐사 '농약 중독' 때문

#### 담양군 조사결과 발표

#### 밀렵꾼 수사의뢰 검토

지난달 광주담 인근에서 잇따라 발생한 천연기념물 327호 원앙의 집단 폐사는 농약 중독 때문인 것으로 조사됐다.

담양군은 2일 "최근 집단 폐사한 원앙은 '포스파미돈 중독증세를 보이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국립수의과학검역원으로부터 통보받았다"고 밝혔다.

포스파미돈은 술잎혹파리 방

제에 많이 쓰이는 약제로, 지난해 1월 대전에서 폐사한 원앙들에서도 검출됐다. 부검 결과 광주담에서도 죽은 원앙들의 몸에서는 법시도 다량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다.

군은 포스파미돈이 일반적으로 농사가 아닌 소나무 재선충 방제에 많이 쓰이고, 1주일 간격으로 일요일에 원앙이 집단폐사한 점으로 미뤄 밀렵꾼 등이 이 약제를 뿌렸을 개연성도 있는 것으로 보고 경찰에 수사의뢰를 검토하고 있다.

/중부취재본부=노정훈기자 cjoh17@

### 10억대 옷 밀수 판매

### 50대 여성에 징역형

최근 3년간 10억원대의 해외 유명 브랜드 의류를 밀수입해 판매해 온 50대 여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2단독(납성민 부장판사)은 2일 유명 브랜드 의류를 밀

수입한 혐의(관세법 위반)로 기소된 정모(여·55)씨에 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9억6800여 만원을 추징했다.

정씨는 광주시 동구 자신의 집에 전자상거래 업체를 차려놓고 2007년 3월부터 3년여간 9800차례에 걸쳐 미국산 의류 1만760벌(도매가 9억6000 만원 상당)을 인터넷 쇼핑몰 2곳에서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 목포 '룸살롱 마담 노트' 292명 입건

### 목포 여대생 피살 사건 수사 활기

'목포 룸살롱 마담 장부 사건'(본보 9월15일 6면)을 수사중인 경찰이 해당 룸살롱 업주와 성매수 남성 등 292명을 무더기로 입건했다.

목포경찰청은 2일 목포 H룸살롱에서 불거진 성매매 사건을 수사한 결과 성매수 남성 252명과 성매매 여성 37명, 룸살롱 업주 등 업소 관계자 3명 등 29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성매수 남성 중 공무원 및 공기업체 직원은 37명, 회계사와 의사 등 전문직 종사자와 자영

업자 94명이며, 나머지는 일반 회사원이거나 무직자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성매매 남성 중 공무원에 대해서는 업무와 관련된 업체 등으로부터 항응접대를 받았는지 여부를 추가로 수사할 방침이다.

경찰은 지난 6월 여중업원과 손님 간 폭행사건을 수사하던 중 성매매 여부 등을 가리기 위해 룸살롱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속칭 '2차 장부'를 확보해 4개월간 수사를 벌여왔다. /서부취재본부=김병관기자 dss6116@

### 휴대폰 등 유류품 발견

'목포 여대생 피살 사건'을 수사중인 경찰이 살해된 여대생 조모(22)씨의 유류품을 일부 발견하고, 목격자 진술을 확보했다.

2일 목포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달 16일 새벽 4시30분께 목포시 상동의 한 배수로서서 조씨가 살해된 채 발견된 지점에서 2km 떨어진 용해동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앞바다에서 조씨의 휴대폰과 반바지 등이

든 손가방을 발견하고, 국립과학수사 연구소에 정밀감식을 의뢰했다.

경찰은 또 "시신이 발견된 지점에서 5m 떨어진 곳에 어두운 색 계통의 승용차가 주차해 있었다"는 목격자들의 진술을 토대로 헬기 2대와 경찰관 350명을 동원해 검문과 수색작업을 하고 있다. 경찰은 특히 숨진 조씨의 신체와 옷에서 발견된 DNA가 동일 남성의 것으로 확인했다.

/이충행 기자 golee@kwangju.co.kr /서부취재본부=김병관기자 dss6116@

# 대학편입 마무리

## 실전트레이닝!

**김영만의 탄탄한 합격시나리오 11월 1일 대개강**

수도권 편입대비 편입영어 Final Course	이공계,자연계 편입대비 편입수학 Final Course	전남대 편입대비 TEPS 100점 올리기 Project
-------------------------------	-----------------------------------	-----------------------------------

# 김영편입학원

광주 동부경찰서 뒤 (062) 227-8088

♥신축건물에  
우아하고 품격있는 객실!

♥각종 이벤트 행사  
장소로도 적합!

**1객실 1주차  
토심숙 정통무인텔!**

# 무인텔 필

**☎ 062) 523-7789**

광주광역시 북구 유동 105-1번지  
현대백화점 옆 LG전자 뒷편

인터넷주소 : www.feelmotel.kr

테마룸 ➔ 썬 뉴베드 두바이 산토리니 씨클 재부라 플라워 피스 원기둥 네이처

NAVER 검색창에 무인텔 필 을 쳐주세요!